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자*

: 어린이독서운동을 제창하며

최 정 태**

I

지난 여름,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한반도를 붉게 물들게 하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붉은 악마들과 젊고 단련된 선수들, 그리고 거스 히딩크(Guss Hiddink)라는 걸출한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히딩크의 이름을 영어식으로 해석하면 ‘싱크사커’(think soccer)라 불린다. 연습 때면 선수들에게 항상 “경기 중 생각하며 뛰어라”고 강조하는 히딩크는 전략, 전술에 강한 지장(智將)에 가깝다. 그의 지략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그 해답은 어릴 적부터 익혀 온 독서습관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는 평소 책을 놓치지 않는 책벌레로서 소설을 비롯한 역사서 4~5권을 한꺼번에 구입해 두루 읽는 스타일이다. 대표팀의 한 관계자는 “3월 유럽 전지훈련 때 그의 큰 가방에는 책 만 잔뜩 들어 있었다.”고 한국일보(2002.6.16)는 전했다.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터넷 황제, 빌 게이츠는 공식 석상에서 “내가 살던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어릴 때부터 쌓아 온 그의 독서습관을 얘기하고 있으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원리를 정리하기까지에는 물리학뿐 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읽어 온 역사, 철학, 문학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책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고 그 인생이 모여 사회와 국가를 형성한다. 책 읽는 사람이 많을 수록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고, 좋은 사회가 많이 융성할수록 그 국가는 미래가 밝다. 그러므로 책은 우리의 미래이고 책을 읽지 않는 사회와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는 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는 밝은 미래를 위하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책을 읽게 한다.

하지만 지금 한국 성인 중 55%가 한 달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는 한국갤럽의 조사가 나왔다. 부모들이 이런 실정이니 그 집의 아이들은 오죽할 것인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젊은 아이들이 책을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자극적인 영상매체, 컴퓨터 게임 등이 책을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9월 11일 뉴욕의 대 참사는 귀중한 생명과 함께 잃은 것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다. 미국 사회일각에서는 그동안 오만과 우월주의에 대한 자기성찰과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되었고, ‘어린이 독서’,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등 가정에 대한 관심과 ‘독서’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 이 논단은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어린이독서지도사)제5기 과정, 특강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와 같은 최근 미국의 독서바람은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과 깊이 결부되어 있다. 시카고 공공도서관은 시카고市와 함께 《한 권의 책, 하나의 시카고》(One Book, One Chicago)라는 로고를 제정, 어린이 독서프로그램으로 “독서에 열광하자”(Get Wild About Reading)라는 캠페인을 공동발표하면서, ‘북 스타트’를 응용한 행사의 하나로 ‘아이들 평생독자’(life long readers for children)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그만한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독서를 습관화하고 독서를 생활의 방편으로 삼아서 여기서 키워온 독서력 때문이라고 말한다. 타임(TIME)지에서 25년 간 백악관 출입기자로 활동하면서 역대 대통령을 관찰해 온 보니 엔젤로(Bonnie Angelo)가 최근에 펴낸 『대통령을 키운 어머니들: First Mothers』(나무와 숲, 2001. 8. 704쪽)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에서 빌 클린턴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현대 대통령 11명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린 시절의 특성은 모두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키운 어머니들은 현대의 유아발달 전문가들이 역설하는, ‘아기의 정신을 자극하라, 아이들에게 요람에서부터 책을 읽어 주라’는 충고를 본능적으로 따른 것이다. 그들은 책을 항상 중요하게 여겼고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워 제 발로 걸을 때부터 낱말과 읽기, 배우기와 지식에 대한 사랑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었다.”

“어린 프랭클린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책이었다. 그가 받은 최초의 선물은 세 살 때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놓여있는 『유치원의 아이들』이라는 책이었다. 그는 역사책, 특히 해군의 역사에 대한 책을 열심히 읽었다. 이는 훗날 그가 해군을 사랑하게 되고 머지않아 해군 차관보로 임명되리라는 것을 예견이라도 해주는 것 같았다.”

“어린 해리는 시력이 나빠 비싼 안경을 써야 했지만, ‘안경은 그에게 먼 과거의 역사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넓은 시야를 제공해 주었다’고 트루먼의 어머니는 회고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트루먼은, 주요 보고서나 문서를 한 페이지로 요약해 주길 바라는 다른 대통령들과는 달리 보고서를 몽땅 읽었다고 국무장관 딘 애치슨은 회고한다. 그것은 그의 소년시절부터 평생 따라다닌 독서습관이자 이해방식이었다. 훗날 트루먼은 열 서너 살 때, 이미 그가 살던 시골의 공공도서관에 있는 책을 거의 다 읽었고 ‘우리 집에 있던 오래된 성경책을 세 번 통독했다’고 말했다.”

또한, “케네디의 아버지가 아들의 야망을 키워주고 아이들에게 스포츠나 정치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역설하는 동안, 어머니 로즈는 아이들의 정신과 마음을 돌보았다.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책이었다. 아이들이 혼자서 책 읽는 법을 배워감에 따라, 어머니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에서 『고대 로마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들을 사들였다. 호기심이 강하고 몸이 아파서 자주 누워 있어야 했던 어린 잭(케네디)은 아이들 중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었다.”

그리고 “플레인즈 농장에서 카터 일가의 생활은 배터리로 작동되는 라디오와 책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그의 어머니 릴리언은 그가 네 살 때 책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 후 대통령이 되었어도 책 읽기를 게을리 한 적이 없었다. 책은 그에게 세계를 열어 준 선생님이었고 멋진 친구였다고 추억에 잠겨 회고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부시대통령의 친모 바바라 부시(Barbara Bush)여사도 예외가 아니다. 난독증이

었던 어린 부시에게 플리시카드를 들고 읽기연습을 시켰으며, 지금 부시대통령도서관(Bush Presidential Library : Texas A&M University Campus 소재)에서 '어린이독서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녀가 운영하는 재단《The Barbara Bush Foundation for Family Literacy》전단에는 다음과 같은 경구가 커다랗게 새겨져 있다. "아이들의 첫 번째 선생님은 부모이고, 아이들의 첫 번째 학교는 가정이다.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성공하는데 부모들이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이 일찍 그리고 자주 책을 읽도록 하는 것이다."(최정태,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와 어린이 독서교육운동』, 『도서관문화』Vol. 42, No. 5(2001.9), 22~28쪽)

미국뿐 만 아니라 선진세계는 교육, 문화뿐 만 아니라 가치도덕 전환의 방편으로 '독서혁명'을 외치고 있다. 그것도 어린이를 위한 독서운동에 주안을 둔 것이 특징이다. 영국은 문화미디어체육부가 주관하여 어린이 독서캠페인의 대명사인 '북 스타트'(Book Start)에 500만 파운드(우리 돈, 약 95억 원)를 지원하고, 2000년에는 6세 이하 어린이만 650만 명이 동참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 밖에도 유명스타의 책을 읽는 모습을 담아 포스터로 제작 배포하여, '독서에 빠지기'(Get Caught Reading)캠페인과 침대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잠자기 전 책읽기 주간'(Bedtime Reading Week)행사를 펼치고 있다. 아이들에게 생후 6~7개월 짜부터 책을 읽어주는 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침착성과 호기심 향상에 큰 효과가 나타났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린이를 위한 독서운동은 선진국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일본 국회는 지난 해 12월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학교도서관 및 도서비 예산으로 올해부터 5년 간 매년 1백 30억엔(우리 돈, 총 6천 5백억 원)이 배정된다. 일본 내 현역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과 작가, 문화인그룹으로 구성된 초당적 단체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원 연맹'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문제는 일본의 미래가 걸린 가장 중요한 핵심현안"이라고 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다. 당분간은 강제적으로라도 일정수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한 일본의 지금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9%이고, 1인당 장서수는 20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1953년에 제정되어 1997년 개정된 '학교도서관법'은 전국 4만여 초, 중, 고교에 2003년 3월까지 전담 사서교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못을 박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전국 10,061개 초등, 중등, 고등학교 중 설치된 도서관 수는 345개이고, 도서실 수는 7,573개로 보고되어 있다.(교육부, 교육통계연보, 2001) 모두 합하면 7,918실이 되어 설치율이 78.7%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전담사서교사가 있는 학교는 150여 개에 불과해서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은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II

그나마 최근 3년 동안 학교도서관 수가 대폭 줄어들고 있다. 1999년에 8,716개관이던 것이, 2000년에는 8,060개관으로 656개 도서관이 없어지고, 2001년에는 다시 7,918개관으로 142개 도서관이 없어졌다. 3년 사이에 798개관이 사라진 것이다. (서울중등 학교도서관 교육연구회, 회지, 제5호

[2002.7.22.]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정보화 선진국, 지식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 정부는 도서관을 죽이면서 지식, 정보를 외치고 있다. 이와 반면에 우리 사회 한쪽에서는 지식의 한 장르에서 새로운 기운이 움트고 있다. 국민들이 한 걸음 성숙해서일까.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것일까. 지금 신문과 방송에서는 도서관과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과의 가교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한겨레신문사가 '사회의 책을 학교로' 라는 토픽을 가지고 몇 년 전부터 '학교도서관 살리기'에 큰 비중을 두고, <한겨레가 만든 책(<http://www.hanibook.co.kr>)>사이트에서 인문사회 교양, '한겨레 아이들'의 연결고리를 통하여 어린이에 대한 주제에 맞는 책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문화일보에서는 2002년 5월 27일부터 '다시 책이다. 책을 사랑을 실어'라는 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어 '책 선물 릴레이'를 펼치고 있으며, 조선·중앙·동아 등 주요일간지들이 '책마을', '행복한 책읽기', '책의 향기' 등 독서코너를 마련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4면씩을 할애하고 있다.

한편, 방송에서도 KBS 1TV에서 'TV책을 말한다.'를 매주 목요일 밤마다 방영하면서, 책읽기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행위를 넘어 개인과 사회,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원천이 된다는 확신 아래, 국민들을 책읽기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방위적 운동을 펼치고 있다. 공영방송 KBS는 가치있는 사회, 제대로 가는 사회를 위하여 이제 책의 힘, 책읽기의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있어 많은 시청율을 확보하고 있다.

MBC에서도 <!느낌표>에서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 코너를 만들어 "문자를 읽지 못하는 것이 '문맹' 이라면, 책 읽지 않는 사회는 '책맹사회'다! '책맹사회'는 문맹사회 보다 위험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매월 좋은 책 한 권을 선정해서 한 달 동안 모든 국민이 읽어보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BS에서도 매주 수요일 20:20부터 '정운영의 책으로 읽는 세상' (중영)에 이어서 '도종환의 책과 함께 하는 세상'을 방영하면서, 영상매체의 압도적인 위력 앞에 설 자리를 잃어 가는 활자 매체가 가지는 깊이를 알려주고, 동서양과 고금을 아우른 명저들을 통해 '책 읽기의 가치'를 일깨우고, 바람직한 독서문화의 보급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언론기관뿐 만 아니라 뜻 있는 시민단체에서도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성인 및 어린이 독서 활성화를 위해 모임을 결성하고, 현재도 사업을 왕성히 추진하고 있다. 그 모임들의 취지와 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좋은 책읽기 가족 모임 (<http://www.readersclub.or.kr/>)

책이 없어 읽지 못하는 산간벽지, 오지, 섬 마을 어린이들과 지역주민에게 작은 도서관을 개설하여 책 읽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도시와의 문화 평준화를 기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좋은 책을 읽음으로써 순수한 심성을 잃지 않고 자라서 우리 사회를 맑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의 책 모으기' 운동을 중점적으로 벌이고 있다.

2. 사단법인, 한우리 독서문화 운동본부 (<http://www.hanuribook.or.kr/>)

한우리 독서문화 운동본부는 문화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전국적으로 독서운동을 전개하여 국민

의 지성과 교양을 높이며 문화시민의식을 계발하고 진취적 세계관의 확립, 선진국민으로서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며 유관기관, 단체 및 회원간의 협력증진을 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3. 책 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http://www.bookreader.or.kr>)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은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문학작가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 한국도서관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가 함께 범시민적으로 연대하여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책읽는 사회로 만들 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독서운동을 하고 있다.

4. 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 (<http://www.urido.net>)

“학교도서관이 살아야 교육이 변하고, 교육이 변해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라는 기치 아래, 진정한 교육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의 뜻을 모아 2000년 11월 30일 ‘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 창립을 선언하였다.

사업계획으로, 먼저 국민들을 향하여 학교도서관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설명하고 설득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뿐만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 문화예술인 등 전 국민이 함께 하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 도서관 부터 살리는 운동’으로 만들어 간다. 다음, 제도와 법을 개혁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문화와 교육행정청에 대하여 공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도서관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한다.

5. 서울중등 학교도서관 교육연구회 (<http://slib.x-y.net>)

1975년 ‘서울시 사서교사연구회’를 창립하여 1987년까지 활동하다가 1996년 ‘서울시 사서교사협의회’로 재출발하였다. 이 연구회는 서울지역의 중·고등학교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서교사 및 도서관 담당교사로 구성된 연구회로서 서울특별시 교육과학연구원에 등록되어 있다. 연구내용은 학교 도서관 업무와 독서교육, 도서관 전산화, 정보활용교육, 교수협력수업에 관한 연구활동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무연수는 년2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실시하고, 현재 ‘서울중등 학교도서관 교육연구회’지(년 2회 발행)를 제5호(2002. 7.22)까지 발행하고 있다.

6. 서울독서교육연구회 (<http://www.readingchildren.com>)

서울독서교육연구회는 1996년 2월, 순수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창립되어 ‘책고리운동’을 펼치고 있다. ‘책고리’라는 말은 책을 보관하는 상자란 뜻인 순수한 우리말이다. 책을 보관하는 곳, 즉 책고리는 도서관을 의미한다.

이 연구회는 어린이독서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 현재 독서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좋은 독서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싶은 사람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연구회 소식지 ‘독서교육정보’를 계간으로, 현재 26호(2002년 여름호)까지 발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학교도서관을 사랑하고 어린이 독서교육을 주창하는 순수 민간모임이 많다. 그 명칭과 모임의 성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 사서교사 및 도서관 담당교사들의 연구회
- 2) 학교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학사모) : 하이텔 작은 모임
- 3) 학교도서관사서 : 다음카페, 경기도 학교도서관 만들기 지역별 동아리 모임
- 4)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교사들의 모임(책따세) : 드림위즈 클럽,
- 5) 학교도서관을 살리는 교사들 : 도서관담당 교과교사들의 모임
- 6) 서울시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지원팀 : 다음카페, 각 지구별 지원현황 파악
- 7) 영남사서교사모임 : 영남지역의 사서교사들의 친목단체
- 8) 대구 학교도서관 연구회 : 대구지역 도서관담당교사와 사서교사, 도서관부의 연합체
- 9) 광주학교도서관연구회 : 광주지역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들의 모임
- 10) 책 읽는 교육사회 실천회의 : (주)책이랑과 함께 학급문고 살리기운동 추진
- 11) 좋은 글 좋은 사람 :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어린이독서지도사과정 수료자들의 모임. (현재, 제 7호(2002. 8)까지 글쓰기모임집을 펴내고 있다.)

III

책이 콘텐츠산업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또한 한 콘텐츠가 다양한 문화산업의 근원이 된다는 'one source, multi use'를 세계가 주목한 지 오래이다. 지식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될 21세기, 지식경쟁력의 핵심인 책과 책읽기에 있어서 몇 개 선진국을 살펴본 결과, 아이들의 성격 결정과 성공 여부는 부모의 독서행태와 관련이 많고 어린이의 독서교육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그리고 독서활동을 위한 도서관 이용이 생활화되어 사회 곳곳에 독서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어린이 독서교육은 국가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되어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다.

반면에, 지금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와 대책이 미흡하고 내용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국민연대 또는 지각있는 개인과 단체들이 학교도서관 살리기와 국민독서운동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독서운동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다.

대체로 우리는 성인을 위한 독서, 주부를 위한 독서에 관심을 가졌지 어린이독서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이제부터는 어린이독서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릴 때부터 책에 대한 관심은 성장해서 독서 습관화로 이어져 생활의 지혜를 가져다 주고 인생의 성공을 검증한 미국 역대 대통령의 사례를 보았다. 독서는 자기교육(self education), 평생교육(continuing education)을 위한 최선의 수단과 방법일 뿐만 아니라 지적발달 측면에서 논리와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밑 걸음이 된다.

특히, 어린이에게 독서는 문자나 기호를 인지하고 의미있게 재구성하는 두뇌활동에 해당해서 ①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준다. ② 감성을 풍부케 한다. ③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게 한다. ④ 간접

체험을 제공해준다. ⑤ 아름다운 말과 글을 배운다.(조정란,「아이들에게 책이 왜 필요한가」,어린이독서연구회, 1996. 20-26쪽)라고 전문학자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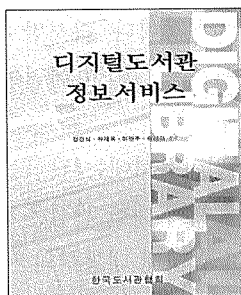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어린이독서에 대한 국민들의 획기적인 인식변화와 함께 정부와 언론매체, 출판사 등이 공동으로 '어린이 독서운동'의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창한다. 둘째, 당사자인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위해 어릴 때부터 '독서습관화' 하는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부모는 아이들의 최초의 선생이고, 가정은 최초의 학교다"라고 했듯이 부모의 헌신적인 교육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모든 초, 중등학교마다 학교도서관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 학교도서관의 발전은 곧 '학교도서관 진흥법'의 입법화에 달려있는 만큼 하루 속히 제정, 공포되어 학교도서관의 새로운 장을 열도록 해야한다.

나는 지금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어린이독서지도사》 자격 취득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그러한 연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책은 우리에게 정신의 자양분이며 생활의 필수도구 이어서, 어릴 때부터 독서습관은 미래를 결정짓는 기초골격이 된다. 때문에 우리의 일상성에서 어린이를 위한 독서운동은 가장 지혜로운 일이며, 가장 가치있는 일 중의 하나임을 자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서 활동 또는 어린이 독서운동을 실천하는 단체와 개인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신지식인'이며, 한국의 문명을 여는 '뉴프론티어' 들이다. 그들은 투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으로써 직업을 수행하고 있어, 그들의 활동무대는 더욱 넓어져 학문의 개척과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신 간

디지털도서관 정보서비스

정진식, 유재옥, 이란주, 유사라 공저



크라운판/403쪽
ISBN 89-7678-059-0
정가 16,000원
회원보급가 12,800원

목 차

- 정보서비스의 이해
- 정보질의와 응답과정
- 정보면담과 커뮤니케이션 기술
- 온라인 정보서비스
- 온라인 정보탐색과정
- 정보네트워크와 상호협력
- 정보길잡이 구축
- 이용자 교육
- 정보서비스 평가
- 웹 참고정보원

문의 한국도서관협회 전화 : 02-535-4868 팩스 : 02-535-5616 e-mail : klanet@hitel.net